차이나 CHINA Market Watch 마켓 워치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2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中, 13개 성(省) 1~9월 GDP 발표...성장률 평균 6.0%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9월 중국의 GDP는 전년 동기대비 5.2% 성장한 91조 3,027억 위안(한화 약 1경 6,797조 원)이며, 제조업 및 민간 프로젝트 투자(부동산개발 투자 제외)는 각각 6.2%, 9.1% 증가했고 9월 PMI 지수는 50% 이상 구간으로 회복됨

- 10월 22일 기준 13개 성(省)에서 주요 경제지표를 발표했으며 GDP 성장률이 평균 6.0%로 나타남. 이 중 저장성, 쓰촨성, 후베이성, 상하이시, 베이징시는 GDP가 3조 위안(한화 약 552조 원)을 돌파했고 저장성은 5조 9,182억 위안(약 1,089조 원)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쓰촨성(6.5% 성장)은 성장률 1위를 달성

- 중국재정학회 장이췬(张依群) 주임은 중국 전역에서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신에너지, 반도체 칩, AI, 바이오, 산업용 로봇 등 첨단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밝힘. 한편 궈진(国金)증권 자오웨이(赵伟) 애널리스트는 향후 정부에서 재정정책을 통해 인프라 투자를 견인하고 통화정책을 통해 투자와 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분석함

자료원 : 광명일보, 증권일보
http://views.ce.cn/view/ent/202310/24/t20231024_38761454.shtml
http://www.zqrb.cn/finance/hongguanjingji/2023-10-22/A1697985432503.html

2 中 '신싼양(新三様;전기차·리튬전지·태양전지)', 대외무역 성장 이끌어

■ 중국 금융시장 조사업체 Choice에 따르면 상장업체 5,000개사 중 2,487개사가 올해 상반기 해외 매출 실적을 발표했는데 1,165개사의 해외 매출이 증가하였음

- 업계 전문가는 상장업체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신싼양(新三様, 전기차·리튬전지·태양전지) 수출기업의 매출 실적이 양호하다고 판단함

- 해외 매출 증가액 기준 1~10위 기업은 CATL(宁德时代), BYD(比亚迪), 럭스쉐어(立讯精密), 웨이차이파워(潍柴动力), 창청자동차(长城汽车), SUNGROW(阳光电源), 징커에너지(晶科能源), 룽지뤼넝(隆基绿能), XCMG(徐工机械), 중국해양석유그룹(中国海油) 등이며 CATL와 BYD가 신싼양 수출의 대표로 부상

- 해관총서에 따르면 1~6월 '신싼양' 제품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61.6% 증가함

자료원 : 경제일보

http://www.ce.cn/cysc/newmain/yc/jsxw/202310/24/t20231024_38761322.shtml

3 中 자유무역시험구, 현대적인 산업클러스터 육성에 박차

■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에서 경쟁력을 갖춘 현대적인 산업클러스터 육성이 가속화되는 추세

- 랴오닝자유무역시험구 다롄(大连) 편구는 수소에너지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있으며, 수소에너지 연구개발, 연료전지, 파워트레인, 수소차 관련 프로젝트가 입주하여 다롄시에서 수소에너지 프로젝트가 가장 집중된 구역으로 성장. 올해 상반기 신에너지 산업 생산액은 전년 동기대비 28% 증가한 30억 위안(한화 약 5,515억 원)이며, 이 중 수소에너지 산업 생산액이 30% 증가한 8.9억 위안(약 1,636억 원)에 달했음

- 윈난자유무역시험구 쿤밍(昆明) 편구에는 7만 개 기업이 입주했으며 장비제조, 연초(烟草), 바이오의약·건강식품, 녹색식품, 신재료 등 업종과 물류, IT 소프트웨어, 본사경제, 금융 등 현대적인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있음

- 톈진자유무역시험구의 둥쟝(东疆)종합보세구는 금융리스 사업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항공기뿐만 아니라 선박, 해양 플랜트, 태양광, 풍력발전 등 분야로 금융리스 사업을 확장하여 금융리스업 종사기업이 1.2만 개사로 증가함

자료원 : 경제일보

http://www.jjckb.cn/2023-10/23/c_1310746754.htm

4 RCEP 발효 후 중국과 아세안 국가간 원자재 교역 확대

■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급변하는 반면 RCEP 발효 후 중국과 아세안 국가간 원자재 교역은 지속 확대되는 추세로 중국과 아세안 국가의 산업·공급망 안정을 보장해 주고 있음

- 다롄상품거래소 관계자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간 교역이 활발한 원자재는 팜유·정제유·천연가스·석탄·고무·플라스틱·철광석 등이며, 특히 팜유와 철광석은 중국의 주요 수입 품목으로 중국과 아세안 국가간 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힘

- 광시성은 대량의 목재, 비철금속, 석유, 천연가스, 석탄, 과일 등을 아세안 국가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2023년 상반기 광시성과 아세안 국가간 교역액은 1,614억 위안(한화 약 30조 원)으로 원자재 수입 증가율이 40%를 상회했음

-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과 아세안 국가간 2022년 교역액은 15% 성장한 6조 5,200억 위안(약 1,198조 원)이고, 2023년 1~9월 교역액은 0.8% 성장한 4조 6,800억 위안(약 860조 원)으로 집계됨

자료원 : 경제참고보
http://www.jjckb.cn/2023-10/24/c_1310746927.htm

5 中 전자상거래 플랫폼, 광군제(11.11) 판촉 이벤트 개시

■ 10월 23일부터 콰이서우(快手), 핀둬둬(拼多多), 더우인(抖音), 징둥(京东), 티몰(天猫) 등 중국의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광군제(11.11) 할인 이벤트를 개시하였음

- 업계 전문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과거 복잡한 할인 정책 대신 올해 더 직관적인 할인 혜택으로 소비자의 주목을 끌어 소비 회복을 촉진할 것으로 분석함

- 구체적으로 △티몰은 전체 쇼핑 금액 300위안 초과시 50위안 할인, 8,000만 개 이상의 상품을 올해 최저가에 판매 △타오바오는 신규 상가 대상 20억 위안(한화 약 3,677억 원)의 트래픽 관련 보조금 지원 △징둥은 전체 쇼핑 금액 299위안 초과시 50위안 할인, '100억 위안 보조금' 지원대상 품목 확대 등임

- 10월 24일 징둥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광군제 할인 이벤트 개시 후 10분간 주문 고객수와 주문량 모두 전년 동기대비 4배 이상 증가했음

  - 아이폰·샤오미·화웨이·OPPO·VIVO 등 브랜드의 스마트폰 거래액은 1초내 1억 위안(약 184억 원) 돌파했고, 2K 디스플레이 게임노트북·데스크탑·커스텀 컴퓨터 거래액은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 증가, 100여개 패션 브랜드의 10분간 거래액은 작년 하루 거래액을 초과함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9월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11.6% 증가한 10조 8,000억 위안(약 1,985조 원)으로 전체 소매판매액 증가율을 4.8%p 상회, 전체 상품 소매판매액의 33.9%를 차지했음

자료원 : 중국경제망, 베이징상보
http://www.ce.cn/cysc/tech/gd2012/202310/24/t20231024_38761323.shtml
https://www.bbtnews.com.cn/2023/1024/492814.shtml

6 中, 다싱(大兴)국제공항 올해 여객 수송량 3,000만 명 돌파

■ 10월 11일 오전 기준 베이징시 다싱(大兴)국제공항의 연간 여객 수송량이 3,000만 명을 돌파함. 다싱공항은 2019년 9월부터 운영을 개시했으며 현재까지 항공편 누적 운행량은 70만 편, 여객 수송량은 8,455만 명, 화물·우편 운송량은 57만 톤임

- 현재까지 해외 여객 수송량은 140만 명이며, 54개의 국내외 항공사와 협력하여 202개의 항공노선을 개통했으며, 국제항공 노선이 30여개로 유럽, 아시아, 중동 등지와 연결됨

- 한편 다싱공항은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승객의 편리를 위해 차오챠오(草桥), 구안(固安), 줘저우(涿州) 및 랑팡(廊坊)에 4개 터미널을 건설했고, 징슝(京雄, 베이징·슝안) 도시간 철도가 개통된 후 베이징서역(西站)에서 다싱공항까지 28분, 다싱공항에서 슝안역(雄安站)까지 19분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됨

자료원 : 인민망
http://finance.people.com.cn/n1/2023/1017/c1004-40096543.html

7 中,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최

■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이 10월 17일과 18일 베이징시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번 포럼의 개막식 포럼인 '일대일로 기업인 포럼'은 17일 국가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됨

- 일대일로 건설 10년간 중국은 90개에 달하는 국가 및 국제기구와 농업·어업 등 분야에서 100여건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교배벼(杂交水稻)를 포함한 1,500가지 농업기술을 세계 각국에 보급. 이 외 중국은 문화관광, 교육, 미디어, 싱크탱크, 민간교류, 보건의료, 저탄소·그린 등 분야에서 일대일로 국가와 협력을 개시하였음

- 2023년 6월 말까지 파키스탄, 러시아 등 65개 지역의 표준화기구와 민용항공, 기후변화, 농업식품, 건축자재, 전기차 등 분야에서 107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144개 국가와 문화관광 분야 계약을 체결했으며, 45개 국가(지역)와 학위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했음

- 지난 10년간 중국은 140개 국가 5,000건의 프로젝트에 1조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 이번 '일대일로 기업인 포럼'에 참가한 300명의 국내외 기업인 대표는 향후 인프라건설, 청정에너지, 인공지능, 바이오의약, 금융서비스, 농업, 철로교통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자료원 : 인민일보 해외판, 증권일보망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23-10/18/content_26022098.htm

http://www.zqrb.cn/finance/hongguanjingji/2023-10-18/A1697560614628.html

8 中 광둥성, 대외무역 성장을 위한 조치 시행

■ 광둥성 상무청은 광둥성 정부에서 대외개방 수준 제고 및 무역 성장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 양호한 실적을 거두었다고 발표

- 광둥성은 6개의 수입기지를 건설하여 수입상품 집산지로 발돋움하였고 유럽, 중동, 일본, 한국 등 국가(지역)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여 1,370건의 계약을 체결

- 지난 5년간 투자규모가 1억 달러 이상인 외자 프로젝트를 250여건 유치하여 8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았고 바스프(巴斯夫), 엑슨모빌(埃克森美孚) 등 투자규모가 100억 달러에 달하는 프로젝트 건설을 가동함

- 이 외 IT 아웃소싱 산업을 중점으로 발전시켜 서비스 아웃소싱 집행액이 2017년 186억 달러에서 2022년 322억 달러로 연평균 11.7% 성장했으며, 광저우, 선전, 포산 등지를 서비스 아웃소싱 시범도시로 선정하고 디지털 서비스 수출기지 8개를 육성하였음

- 한편 일대일로 국가와의 교역액은 5년간 연평균 8.4%, RCEP 회원국과의 교역액은 5년간 연평균 5.3% 성장세를 보였음

자료원 : 경제참고보

http://www.jjckb.cn/2023-10/24/c_1310746931.htm